

#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sup>1)</sup>

허 덕(세계곡물시장동향 편집인)\*

## 1. 머리말

최근 들어 브라질의 곡물<sup>2)</sup> 생산량이 크게 늘어 세계 생산량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량도 세계 수출량 측면에서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브라질은 명실상부한 농업대국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두, 옥수수는 생산량·수출량 면에서 미국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산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이전에도 브라질 곡물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지만, 이처럼 크게 부각된 데에는 브라질의 농업정책에 힘입은바 크다. 개방화를 기본으로 한 브라질의 농업정책은 성공사례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브라질의 농업부문을 둘러싼 역사와 제도적 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어 브라질의 주요 농산물인 대두와 옥수수를 중심으로 주요곡물에 관련된 전후방산업에 대한 국내 물류문제도 다루었다.

## 2. 브라질 농업 정책사

### 1) 식민지 시대부터 공화제까지

1500년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발견하면서부터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기까지는 브라질은 식민지 체제가 이어져 왔다. 이어 1822년부터 1889년까지 이

\* huhduk@krei.re.kr

1) 이 글은 林瑞穂의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7号(2018.3) 第6章 브라질의 관련부분을 기초로 하여 필자가 곡물수급 관점에서 재정리·보완 및 해설을 추가한 것임.  
2)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이 취급하는 브라질의 곡물(grão)의 개념에는 쌀, 옥수수 외에 면과 대두 등 유지종자를 포함.

어진 제정시대까지 브라질 농업의 변천에 대해서는 Fausto(1995)와 金七(2009)의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자료의 내용에 근거하여 재정리해보았다.

포르투갈에서는 15세기 초부터 ‘대항해시대’가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은 1498년 인도에 도달한 바스코다가마를 비롯하여 유명한 항해자를 배출하였으며, 1500년에는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 브라질을 발견하였다. 발견 당초만 하더라도 포르투갈 본국의 입장에서는 브라질이 향신료 교역을 가져 온 인도처럼 매력적인 땅은 아니었다. 1530년대 초반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 연안에 식생하던 ‘파우브라질’이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붉은 물감을 유럽에 판매하는 사업 외에 특별한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

16세기경부터는 프랑스가 해외 영토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포르투갈이 취급하던 ‘파우브라질’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경계감을 가진 포르투갈은 이전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1532년에 마르틴 아폰소 데 소우자를 원정군으로 파견하여, 상파울루 연안에 있는 ‘산 비센테’에 파우브라질을 이식하는 등 실효적인 지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경험을 살리는 형태로, 후에 브라질 경제를 지탱하는 사탕수수를 ‘마테이라 섬<sup>3)</sup>’에서 들여왔고, 사탕수수 농원과 제당 공장도 설립하였다.

상파울루 주변에서 시작된 사탕수수 생산은 이후 생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찾아내었고, 점차 생산지역이 북상하면서 브라질 동북부에 위치한 ‘페르난부코’와 ‘바이아’까지 확산되어, 수출시장인 유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브라질에서의 설탕생산은 1570년부터 1620년 사이에 크게 확대되었다. 그 배경에는 유럽 설탕에 대한 수요 증가는 물론이고 경쟁국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618년부터 유럽에서 삼십년 전쟁과 1620년대 네덜란드에 의한 브라질 동북부 침략에 의해 이러한 확대 속도는 둔화되었다. 1630년대에는 카리브 해에 진출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시작되었고, 브라질의 독점상황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단, 브라질에서 설탕의 중요성은 여전히 18세기 중반에도 브라질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탕수수가 브라질 경제의 초석이 된 한편, 생산지인 북동부에서는 플랜테이션의 노동인구를 양성하여 카사바와 축산이라는 농축산물 생산도 생겨나기 시작하였

---

3) 북아프리카 모로코 서쪽 대서양 상에 있는 포르투갈의 섬. 1420년 포르투갈령으로 편입된 이후 유럽의 전통적인 밀 재배와 흑인노예의 노동력에 의해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함.

다. 이러한 움직임은 16세기 후반부터 상파울루 주변에도 일어나며, 포도, 면화, 밀 또는 축산이 시작되었다. 축산은 남부에 위치한 산타 카탈리나와 리우그란데도 술로 확대되어 현재 브라질 농업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브라질 형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농산물은 커피이다. 1727년 브라질 북부에 위치한 ‘파라’라는 곳에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커피나무가 반입되었다. 당초 국내소비 때문에 생산되었으며, 1760년에는 리우 데 자네이루에 들어왔다. 이후, 리우 데 자네이루와 상파울루 주변으로 생산이 확산되어, 광대한 토지와 풍족한 기후 풍토를 겸비한 미나스제라이스에서 체계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커피가 기호품으로 보급되는 경향에 맞추어 19세기 초의 커피는 브라질의 중요한 수출 상품으로 변모하였다.

커피산업의 확대에 수반되는 자본집적은 브라질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항만설비의 정비, 고용이나 새로운 금융시스템 창출 그리고 수송수단 혁신을 가져왔다. 이를 배경으로 1870년 무렵에는 커피산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동북부의 쇠퇴와 남쪽의 경제발전 차이가 결정화되어, 현재의 브라질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남북격차의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1889년부터 1930년까지는 구 공화제가 시작되어 이어진 시기이다. 이 때 상파울루 주,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커피산업의 자본집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와 더불어 커피 부루조아지가 등장하여, 이들 조직체제에 의한 과두정치가 시작되었다. 주요 산업이 커피산업(카페)인 상파울루 주와 축산(레이테, 라떼)이 주 산업인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국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카페콘레이테(밀크커피) 체제로 불렸다.

이 과두정치 시대의 한 예로, 1906년에 도입된 ‘타우바테 협정(Convenio di taubate)<sup>4)</sup>’을 꼽는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커피 수요증가를 배경으로 브라질은 커피 재배면적을 확대시켜 왔지만, 어느 순간 공급과다에 빠져 커피의 국제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 국제가격 하락은 브라질 통화하락을 유발하였다. 하지만, 국내 생산자에 대한 지불은 통화가치 하락 전의 환율로 이루어지지만, 커피단가는 커피 가격이 하락한 후에 환산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여기

4) 브라질 커피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최초의 정부수매에 의한 가격보호조치. 시칠리아노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어 실시하게 됨. 시칠리아노는 상파울루 출신으로 이탈리아계 브라질 사람이며, 경작자이자 상인이었음. (출처: [최우성의 커피소통] 타우바테 협정(Convenio di taubate)과 과잉생산의 딜레마(dilemma),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2772>)

에 수입제품의 가격급등이라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였다<sup>5)</sup>.

이에 연방정부는 커피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의 협력 하에 생산자로부터 일정량의 커피를 수매하여, 국제시장 가격이 좋은 수준일 때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리우 데 자네이루 주, 상파울루 주, 미나스제라이스 주<sup>6)</sup>의 유력한 커피생산자의 압력 아래 만들어진 제도였다. 결과적으로는 연방정부가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상파울루 주가 단독으로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제도는 가격하락 속도를 일정 정도 완화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브라질 정치는 커피 부르조아지가 우위에 서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커피 자본축적을 배경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노동자·도시의 중산계급도 이즈음에 탄생하였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브라질의 기간산업인 커피산업은 매우 어려운 정세에 직면한 적도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유럽의 수요가 위축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1920년대 후반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커피 과잉생산, 1929년 세계 대공황에 의해 커피가격은 하락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대선을 놓고 상파울루 주와 미나스제라이스 주 사이에 균열이 빚어지면서, 상파울루 주와 반(反)상파울루 주였던 그 밖의 지방주로 구성된 ‘자유동맹’의 대립구조로 발전하여, 카페콘레이테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자유동맹은 군부도 연루되었던 바, 리오그란데 도 술 주의 제투리우 발가스를 중심으로 노동자 도시 중산계급의 지지를 얻어, 1930년에 ‘발가스 혁명<sup>7)</sup>’을 성공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과두정치를 탈피하여 중앙집권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현재 농업에 있어 중요한 생산지인 남부에 있는 리오그란데 도 술 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공화제 시대 이 주의 경제는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양화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쌀, 옥수수, 완두, 담배 등의 재배 외에 와인 재배·제조도 시작되었다. 옥수수는 주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되어 가축인 돼지사료로 주로 이용되었다. 20세기 초에는 식육 냉동기술이 도입되어 이 지역의 정육산업이 발전하였다. 다만 상파울루 주가 수출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한 반면, 리오그란

---

5) Fausto, Borris(1995) pp.266-267

6) 1891년에 공포된 브라질공화국헌법에 의해 연방제가 도입되어, 주(州)라는 자치권을 가진 행정단위가 탄생하였음. Fausto, Borris(1995), pp. 249-250

7) 1930년 1월 21일, 브라질에서 반란 일어나 지도자 발가스가 대통령이 된 사건

데 도 술 주는 어디까지나 국내시장을 겨냥한 경제구조였다.

## 2)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앙집권화가 시작된 193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업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Alston&Mueller(2016)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30년대 브라질은 커피의 국제시황 악화에 따라 외화사정이 어려워져, 공업제품 수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시 공업화를 지향하는 정책 입안 그룹은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공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수입대체 공업화’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커피가격이 안정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계속되었다. 수입대체 공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외화자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그동안 이 부문에 대한 국가의 산업진흥책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농업부문의 생산소득을 국내에 분배하기 위해 농산물을 수출할 때 유통세 부과나 자국 통화고를 유지하는 대책 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게 고정하여 인플레이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 부문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애당초 비옥하고도 광대한 땅을 배경으로 농업부문은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었다. 또한 국가경제를 지탱하며 기존 엘리트층이 관여하는 전통적인 농작물인 커피와 설탕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주의적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1931년 국가커피위원회(CNC, 1933년 국가커피부, 1946년 커피경제국, 1952년 브라질커피원으로 개편)와 1933년의 설탕·알코올원(IAA)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 설립되었다.

1960년 이후 브라질에서는 노동자와 영세농가 지지를 배경으로 한 좌익적인 정권이 농지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브라질 보수 세력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주대륙을 둘러싼 환경요인으로 인해 1964년에 군부에 의한 좌파정권을 부정하는 쿠데타가 발생하여, 1985년까지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최근의 거시정책은 ‘개발주의’에 근거한 외화차입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수입대체 공업화도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다.

한편, 농업부문에 대한 자세는 군정 이전과 다르며, 종래형의 비효율적인 대토지 소유제를 개정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근대화와 농지개혁에 힘썼다. 아울러, 근대

화를 위해 현 농업정책의 주축인 ‘제도금융’과 ‘가격지지’ 정책의 확충도 실시하였다. 이 외에 연구기관으로 브라질농목연구공사(EMBRAPA)를 설립하여 도로망이나 저장고에 대한 투자 등도 촉진시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이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였고, 농지개혁 측면도 대지소유주로 대표되는 기존 엘리트층의 저항으로 일련의 근대화 정책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비록 강권적이기는 하였지만, 군부집권 동안에도 경제운영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부집권에 대한 정당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재정적자와 누적 채무에 의한 위기요인으로 인플레이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자, 국민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갈수록 커졌다. 군부가 정권유지를 못하게 될 때까지 압력이 높아진 결과, 1985년 민정이권이 실현되었다. 민주화 상징으로 1988년 현행 헌법인 ‘브라질연방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주로 마이너리티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들이 많다. 또한, 급격한 체제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채무정리 해고를 위한 교섭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장개방이나 자유화를 요구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업정책은 자유화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농지개혁은 계속되었다. 기존 엘리트층의 압력으로 제도로서의 ‘제도금융’과 ‘가격지지’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나 개입 정도를 저하시켜 투자환경을 정리할 수 있도록 IAA를 폐지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다.

다양한 시도에 나선 민주화 이후의 브라질 정부로서는 브라질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연이어 연율 3자릿수,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연이어 연율 4자릿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sup>8)</sup>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역대 정권은 물가동결 등 재정규율을 수반하지 않는 이교적인(heterodox한) 인플레이대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한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인플레이션이 재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2년에 대통령이 된 인터마르 타마르 프랑코 하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카르도조가 1994년에 ‘헤알(레알)플랜<sup>9)</su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급

---

8)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급격한 물가인상.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함.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06281&cid=50305&categoryId=50305>)

속히 진정되어, 1994년 이후는 1자릿수가 되었다. 이 계획은 자국 통화에 대한 신용을 높이기 위해 세출삭감 등의 재정균형과 미국 달러 환율과 링크(크롤링 펙, crawling peg)<sup>10)</sup>된 통화를 외환준비고에 맞춘 발행량으로 컨트롤하는 정통적인(Orthodox한) 대책이었다. 1999년 크롤링 펙으로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지만, 이 계획이 도입되어 현재의 테멜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재정균형주의는 유지되고 있었다.

이처럼 브라질 정부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정리하여 왔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외국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혜택이 있었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수출을 지향하며, 상품유통에 대해 주가 과세하는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라는 세금에 대해, 1996년에 수출 농산품에 대해 ICMS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통칭)강질법’을 제정하는 등 수출촉진책을 추진하였다.

농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의 왕성한 곡물수요와 EMBRAPA의 농업기술개발 진전 등도 브라질 농산물 수출촉진의 주요 요인이었지만, 이러한 정부에 의한 수출에 유리한 환경조성도 수출촉진을 이루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여, 현재와 같은 농업대국 브라질을 이룰 수 있었다.

### 3. 브라질 농업부문의 제도적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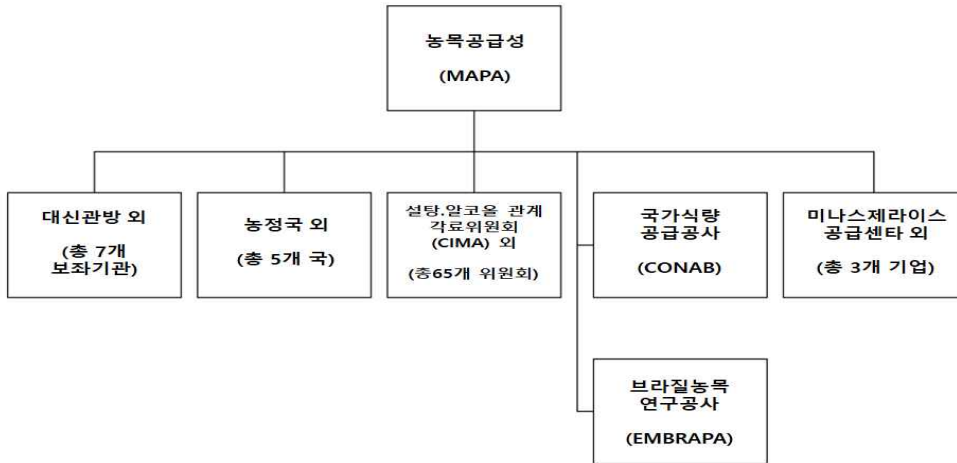
#### 1) 정부 조직

<그림 1>은 브라질 농업부문을 관할하는 정부조직을 도식화한 것이다. 농목공급성(農牧供給省, MAPA)을 필두로, 7개 보좌기관, 5개 행정국, MAPA가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 각료위원회가 6개 있으며, 공사 및 관민합작기업을 포함하여 5개 공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9) 1994년 7월, 당시 재무 장관이었던 카르도조가 입안한 ‘헤알플랜’ 실시를 통해 최대 경제현안이었던 물가 안정화에 성공하였고, 이후 경제성장 기조를 회복할 수 있었음. 1993년 1,850%, 1994년 2,054%에 달하던 인플레이율이 1995년 66%, 1996년 16%, 1997년에는 7%로 안정을 회복하였으며, 물가 안정과 경제 자유화 정책 시행으로 내수 및 투자가 회복되고,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1997년까지 3~6%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출처: 네이버, 브라질 경제사(<https://luis2012.blog.me/221010130065>))

10) 점진적 평가 변경 방식. 평가 절하 또는 절상을 소폭으로 변경하는 일.

그림 1. 농목공급성(MAPA) 조직도(2017.11.1. 시점)



자료: MAPA 홈페이지(<http://agricultura.gov.br>)

MAPA의 준거 법<sup>11)</sup>에 의하면, 농목공급성은 (a) 생산·유통·공급·비축·최저가격 보장에 관련된 농업정책, (b) 양잠을 포함한 농목생산·진흥, © 비축관리전략을 포함한 농목시장·유통·공급, (d) 농업관련 정보, (e) 동식물 위생, (f) 농목업에서 사용되는 투입 경제재와 서비스 감독, (g) 무역에 관련된 재무부에 의한 행위지원을 포함, 동식물 산품과 그 파생 상품의 분류·검사, (h) 토양보호·관리·취급, (i) 농목 관련 기술 연구, (j) 기상학과 기후학, (k) 협동조합과 협회, (l) 농촌에 대한 전력공급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m) 농촌에서의 기술 및 확장 지원, (n) 커피·설탕·알코올에 대한 정책, (o)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 알코올 산업에 대한 정부행위의 기획과 실행, (p) 어업·수산양식의 위생 등 이상 16개 항목에 걸친 농목·수산분야 진흥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전통적이며 특정 산업인 ‘커피’ 및 ‘주정당·알코올’ 분야와 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관여가 큰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농지개혁과 영세농가 보호육성정책 분야에서 기존에는 농업개발부(MDA)가 주무부서<sup>12)</sup>였지만, 2016년 5월에 루세프 대통령(당시)이 탄핵절차 시작으로

11) Decreto N8,852 de 20 de Setembro de 2016

12) 2000년부터 MDA 감독 하에 있던 국립식민농지개혁원(INCRA)을 2016년에 대통령부 관방청 직할 아래로 이전하였음. INCRA는 1970년 법령 1,110호에 의해 제정된 브라질 농지개혁과 국토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임.

정직되자,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 테멜이 부처의 슬립화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부 관방청 내에 가내농업·농업개발특별국(SEAD)을 설립하고, 여기에 MDA의 행정기능을 이관하였다.

브라질 농업진흥 및 감독을 수행하는 MAPA 감독 하에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와 브라질농목연구공사(EMBRAPA)가 있다. CONAB은 브라질 전역의 생산자에서 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농산물 비즈니스 흐름에 관여하고 있다<sup>13)</sup>. 또한, 재배·수확·재고에 관한 타이밍 결정에 관련된 사항 외에 정부가 정하는 최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생산자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구입한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하여 국민에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외에 생산과 가격에 관한 통계 정리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EMBRAPA는 산·관·학으로 구성된 국가농목연구체제(SNPA)와 함께 열대농업의 특성을 가진 브라질 농목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sup>14)</sup>이며, 세라도 개발 때에도 토양개량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 2) 농업정책

과거 브라질 농업정책은 농업부문 전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에 의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국제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구조조정을 계기로 정부의 관여도를 크게 수정하였다.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공적지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정책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는 OECD가 산출하는 ‘농업정책으로 발생하는 농장출하단계에서 계측하는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로의 금전적 이전의 연간 총합을 나타내는 지표<sup>15)</sup>’인 생산자 지지추정(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sup>16)</sup>)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13) CONAB 웹사이트 <http://www.CONAB.gov.br/CONAB-quemSomos.php>

14) EMBRAPA 웹사이트 <https://www.embrapa.br/quem-somos>

15) 安達(2013)

16) 생산자 보조상당치(生産者補助相當値)라고도 함.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 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 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 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됨. PSE의 구성요소는 생산자 및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장가격지지조치, 가격상승 없이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직접지불조치,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요소비용을 낮추는 모든 투입비용보조조치, 생산자에게 지불되지 않는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는 일반서비스정책 등 5가지 범주이며, 지방정부보조 및 세금감면도 포함됨. PSE 계산시

이 지표의 동향을 살펴본다.

PSE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인 내외가격차에 생산량을 곱한 값에 정부 재정지출을 더한 것이며, 그 PSE를 생산액에서 제외하여 생산자보호의 정도를 측정한다(%PSE<sup>17</sup>). 2000년 이후의 %PSE 추이를 나타낸 <그림 2>에 의하면, 브라질은 과거 17년 평균이 5.5%이다. 참고로 미국은 보호 정도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평균 12.2%이다. 또한, OECD 전체로는 23.4%로 브라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위의 내외가격차에 생산량을 곱한 금액은 ‘시장가격지지’라 하며, 브라질의 2016년 PSE총액은 73.6억 달러였으며, 이 중 52.7%인 38.8억 달러가 시장가격지지, 나머지 47.3%인 34.8억 달러는 세제나 대출금리 우대 등을 포함한 재정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브라질 정부가 MAPA의 근거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커피산업,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 알코올 산업이나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 진흥과 인프라 개발 실시 외에, 제도금융, 가격지지, 농업보험, 지역설정계획과 같은 4가지 기본정책을 산업 진흥의 툴(tool)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4가지 정책 툴에 대해 MAPA는 매년 계획개요<sup>18</sup>)를 공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말까지를 대상으로 한 ‘농목업계획 2017/2018(Plano Agrícola e Pecuário 2017/2018)’의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제외사항으로는 농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예산지출(식품가공과 유통분야에 대한 보조), 농업부문과 관련이 없는 지출, 농업부문에서 자원을 탈당시키는 조치와 관련된 지출임. OECD 연례보고서에서 매년 측정 발표되는 계산대상 표준품목수는 밀, Coarse grain(옥수수, 보리, 귀리, 사탕수수), 쌀, 유지작물(대두, 유채, 해바라기씨), 설탕,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양모, 계란 등 12개 품목임. OECD Country Study 시 PSE 계산에서는 각 국가의 농업사정을 고려하여 생산자자격으로 농업생산액의 1% 이상인 품목을 모두 포함함.  $PSE=Q(DP-WP) + S - LV - FA$ , Q: 생산량, DP: 국내 생산자 가격, WP: 국제가격, S: 정부보조(직접지불 및 기타 모든 정부예산지원 포함), LV: 생산부과금(Production levies), FA: 사료보정(가축에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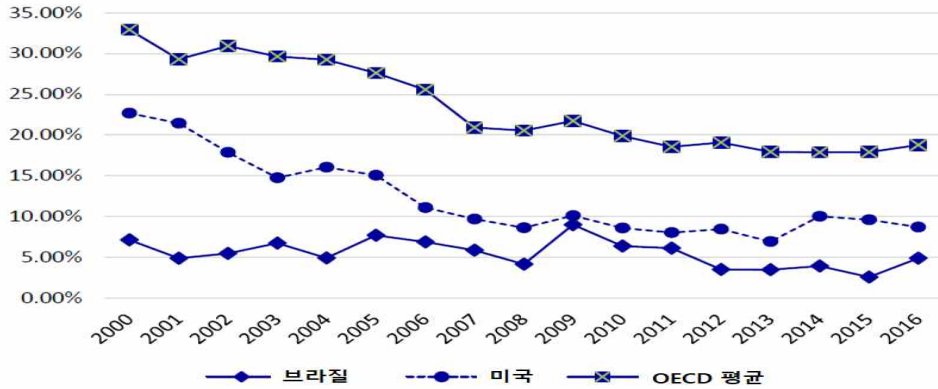
(출처: 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www.kofpi.or.kr/info/tech\\_04.do](https://www.kofpi.or.kr/info/tech_04.do))

- 17) 퍼센트 PSE (%PSE)란 생산액에서 PSE를 제외한 것으로, ‘PSE = 시장가격지지액 + 재정지불액’으로 농가 총수취액 중에서 정부의 농업지지정책으로 인한 수취액을 의미하며, 국가간 비교에 주로 사용됨. PSE는 정책수단의 성격, 목적, 농가생산 및 소득에 대한 영향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농가지지를 측정. 결국 완전자유시장 상태와 실제시장상태를 비교하여 지지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출처: 네이버지식,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1rid=1120&docId=62589151&qb=Yq4UFNF&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1rid=1120&docId=62589151&qb=Yq4UFNF&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18) ‘농목업계획 2016/2017’에서는 기상리스크에 있어 농업 조닝(zoning)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이 조닝은 EMBRAPA와 협력하여, 토양, 기상, 작물 등에 관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작부의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내고, 생산자가 직면하는 기상리스크의 극소화를 도모함. 2016/2017년에도 44개 작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그림 2. 생산자지지 추정(%PSE) 추이



자료: OECD자료에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7号(2018.3) 第6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i) 제도금융

브라질에는 전국농업융자제도(SNCR)라는 농업부문에 대한 융자시스템이 있다. 이 융자 시스템은 브라질의 금융제도를 정하는 국가통화심의회(CMN)에 의해 규정되며, CMN의 하부조직인 브라질중앙은행이 작성한 농업융자안내(MCR)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의해 실행된다.

이 제도는 농업생산자나 협동조합이 투자, 생산, 유통에 관련된 비용, 이노베이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장환율에 비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브라질중앙은행, 브라질은행, 동북부은행, 아마조니아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브라질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BNDES)<sup>19</sup>과 민간 상업은행·브라질연방저축은행(CEF)등의 금융기관이 주요 자금 출자자이다.

<표 1>은 2017/2018년도의 제도금융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MAPA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5%가 늘어난 1,884억 레알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생산자와 협동조합에게 운전자금으로 주어지는 생산·유통·판매자금이 1,503억 레알, 설비 및 기술 개량을 위한 투자자금이 381억 레알이다. 또한, 적용금리는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율 안정에 따라 정책금리가 인하되어, 전년대비 1.0%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의 금리란에 기재되어 있

19) BNDES는 브라질의 산업육성과 인프라개발을 목적으로 1952년에 창설됨.  
BNDES 웹사이트 <https://www.bndes.gov.br/wps/portal/site/home/quem-somos>

는 'TJLP (Taxa de Juros de Longo Prazo)'란 인플레이션과 리스크 프리미엄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장기대출에 이용되는 베이스 레이트이다.

표 1. 2017/2018년도 제도금융 실행 계획

단위: 금액 십억 레알

	2016/2017		2017/2018	
	금액	금액	기간	금리
생산·유통·판매자금(a=b+i)	149.8	150.3		
적용금리 한도 있음(b=c+d+e+f+g+f)	115.6	116.3		
일반농업융자(C)	81.6	74.1	14개월	8.50%
국가 중규모농가 보조 프로그램(Pronamp)(d)	15.7	18	14개월	7.50%
커피생산자경제방위기금(Fundcafe)(e)	4.6	4.9	수확후 90일	8.50%
헌법기금(f)	1.7	3.6	규정 없음	차입자 규모에 따라
알코올스톡(g)	2	2	270일	TLJP+3.7%
애그리비즈니스 신용증권(LCA)(h)	10	13.7	규정 없음	12.75%
적용금리 한도 없음(i)	34.2	34	14개월	-
투자자금(j=k+p)	34	38.1		
적용금리 한도 있음(k=l+m+n+o)	29.3	33		
헌법기금(l)	4.6	5.9	12년	차입자 규모에 따라
브라질국가사회경제개발은행(BNDES)농업프로그램(m)	-	2	규정 없음	TLJP+3.7%
농업혁신프로그램(Prorenova Rural)(n)	-	1.5	18개월	TLJP+3.7%
기타(o)	24.7	23.6	-	-
적용금리 한도 없음(p)	4.7	5.1	규정 없음	-
합계(a+j)	183.8	188.4		

주: 「적용금리 한도 있음」으로 표시된 곳은 정부에 의해 대출금리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며, 「적용금리 한도 없음」은 금융기관과 차입자의 합의에 의해 시중 이율이 적용됨. 또한, TJLP는 CMN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금리를 나타내며, BNDES 경우 중장기 파이낸스의 베이스 레이트로써 이용됨. 인플레이터 갱신 레이트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4분기 마다 계산되기 때문에, 시장조달 레이트와는 괴리가 있음. 때문에 TJLP 대신에 시장조달 레이트를 참고치로 하여 계산하는 새로운 장기금리 베이스 레이트 TLP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자료: MAPA의 자료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7号(2018.3) 第6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표 2>는 2016/2017년도 제도금융실행금액을 원자(原資)별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하에서는 표 안의 번호 순으로 설명한다.

우선 첫 번째 농업정기예금(Poupança Rural)이다. 이는 고객에게서 이 예금을

모든 시중 금융기관이 이 예금 평균 잔액의 65%를 농업부문에 쓰도록 대출에서 요구하는 예금이다. 주로 <표 1>의 ‘생산·유통·판매자금’ 내역에 있는 적용 금리 결정으로 일반 농업융자로 충당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금은 조달한 자금에 대해 통상적인 금융상품보다 리턴은 낮지만 금리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강제적 원자(Recursos Obrigatórios)이다. 이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연방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고객성 예금(vista) 평균 잔액<sup>20)</sup>의 34%를 농업부문에 사용하는 대출에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 은행면허를 가진 형태의 금융기관은 고객성 예금의 평균 잔액 45%를 국내의 유동성 관리 관점에서 브라질중앙은행에 강제예탁금으로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되어 있다. 이 예치금에는 금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강제예탁금제도로 인해 조달한 자금의 유효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용자를 실시하는 경우, 그 예탁금액을 산출하는 원인이 되는 평균 잔고에서 용자잔고를 공제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용자제도는 금융기관이 크레딧 리스크를 지지만 운용할 수 없는 예탁금액을 압축하여, 본래는 금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금이 금리 이익을 낳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는 메리트가 된다.

세 번째는 애그리비즈니스 신용증권(Letra de Crédito do Agronegócio/LCA)이다. 이는 금융채(金融債)의 하나이며, 발행단체인 금융기관이 LC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35%를 농업부문에 사용하는 대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LCA는 발행금융기관이 과거에 추진하던 농업융자 채권을 담보로 기채(起債)<sup>21)</sup>를 하고 있어, 해당 채권을 구입하는 투자자에게 만일 LCA 발행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그 증명 자산으로 별채권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가 경감된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에게는 기존의 채권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달수단이며, 한편 통상 예금과는 달리 조달자금은 브라질 중앙은행 전용으로 강제 예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메리트도 있다.

네 번째는 BNDES이다. 이는 저장고나 관개설비를 위한 용자 등 다양한 농업용

20)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성예금의 평균잔고가 70백만 레알 이하의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됨.

21)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임.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 발행법으로 소위 교부공채가 있음.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 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임. 예컨대 전제사망자보상금(戰災死亡者補償金)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 등임. (출처: 의회용어사전)

자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국영개발은행이며, 시중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 사용을 제한하되 시장조달 환율보다 저리 레알 자금을 공급한다. 시장조달 환율과 금융기관에 주는 환율차이를 재무국이 보전해줌으로써 이 대출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BNDES의 계획을 활용하여 실시한 농업부문 전용 용자의 크레딧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이 부담하며, BNDES는 자금 공급처인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취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헌법기금이다. 이는 1988년 브라질연방공화국 헌법 제159조에 의해 소득세와 공산품세 세입의 3%를 브라질 북부·동북부·중서부지방 개발에 충당하도록 정해졌으며, 1989년 법률 7,827호에 의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는 북부대출헌법기금(FNO), 동북부대출헌법기금(FNE), 중서부대출헌법기금(FCO) 등 3가지가 있다, FNO는 아마조니아은행, FNE는 동북부은행, FCO는 브라질은행을 경유하여 대출이 나가고, 그 일부가 농업부문용으로 열려 있다.

여섯 번째는 일반자금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일반대출 행태를 보인다.

일곱 번째는 커피생산자 경제방어기금(Funcafé)이다. 이는 1986년 대통령령 2,295호로 제정되었다. 1987년 법령 94,874호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커피산업 보호육성과 커피 수출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 대출이다. 기금은 커피산업에서 징수한 세금과 기부금 등으로 성립되며, Funcafé의 프로그램에 의한 용자는 시중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표 2. 2016/2017년도 원별 제도 금융 대출 실적

단위: 십억 레알

	금액	비율(%)
1. 농업정기예금	48.2	31.7
2. 강제적 원자(原資)	47.2	31.0
3. 애그리비즈니스 신용증권	17.8	11.7
4. BNDES	15.8	10.4
5. 헌법기금	10.7	7.0
6. 일반자금	5.7	3.8
7. Funcafé(커피생산자 경제방어기금)	2.5	1.6
8. 기타	4.2	2.7
합계	152.1	100.0

\*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에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戰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7号(2018.3) 第6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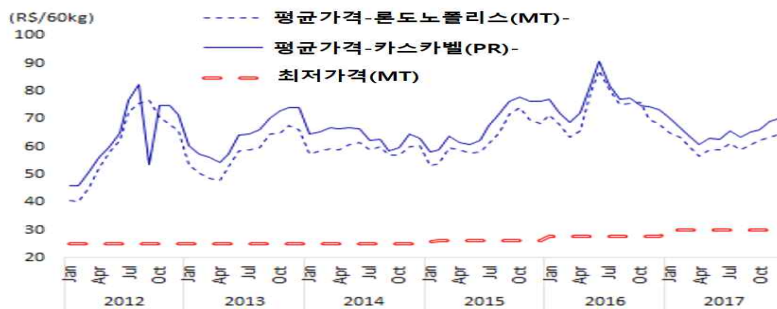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타는 재무국이나 주정부의 자금을 원자로 한 융자 등이 계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 제도융자의 특성으로는 구조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성하고 있지만, 그 원자재 조달비용이나 신용위험은 실제로 융자를 실시하는 시중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곳이 많은 모델이며, BNDES에 대한 이차지원이나 헌법기금 등을 제외하면, 재정 출동형의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ii) 가격지지

브라질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에는 시장가격 변동에 대처하고 국내 식량공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가격보증정책(PGPM)이 있다. 최저가격은 MAPA를 중심으로 하여 재무성이나 기획·예산·운영부와 함께 결정하며, 이 가격에 따라 CONAB이 농산물 구입 등을 실시한다<sup>22)</sup>. 일례로, <그림 3>과 <그림 4>은 대두와 옥수수 마토그로소 주(MT)와 파라나 주(PR)의 생산자가격지수와 최저가격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가는 생산자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시장메카니즘이 기능하고 있다. 또한 대두의 최저가격은 브라질 전국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7년 10월 시점에서 60kg당 30.17 레알로 운영되고 있다. 옥수수는 지역마다 설정되어 있는데, 2017년 9월 시점에서 옥수수 60kg당 마토그로소 주에서는 13.56 레알, 파라나 주에서는 17.67 레알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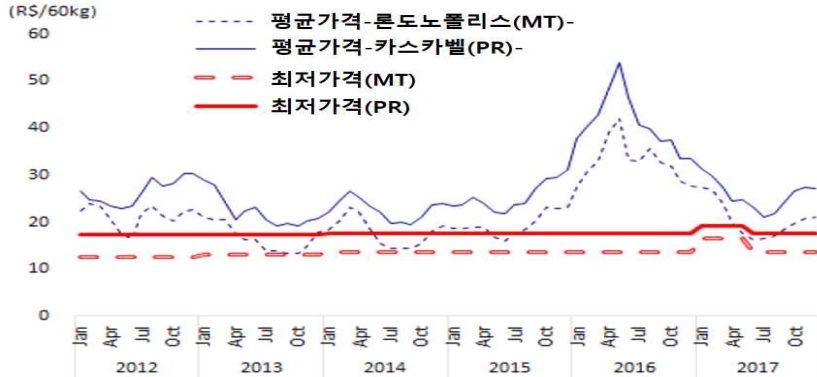
그림 3. 대두 생산자가격지수와 최저가격 추이



자료: MAPA자료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7号(2018.3) 第6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22) 최저가격은 작물별·지역별로 설정되어 있음. 곡물 이외에도 오렌지나 우유 등 30 종류 이상의 작물에 대해 정해짐.

그림 4. 옥수수 생산자가격지수와 최저가격 추이



자료: MAPA자료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7号(2018.3) 第6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PGPM의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에 대해 2017/2018년도(대상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예산은 14억 레알을 설정하고 있지만, 방법으로는 구입과 대출이라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구입을 통한 방법은 주로 5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연방정부수매제도(AGF: Aquisicao do Governo Federal)이다. 이는 시장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정부가 CONAB를 통해 생산자나 농협에서 구입하는 제도로, 구입된 농작물은 전국에 있는 CONAB 저장고에서 관리된다.

두 번째는 생산자구입프리미엄(PEP: Prêmio para Escoamento de Produto)이라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가 생산자나 농협으로부터 최저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장가격과의 괴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통업자에 대해 보충하는 구조이다.

세 번째는 생산자용 지불균등화 프리미엄(PEPRO: Prêmio Equalizador para o Produtor)이다. 이는 생산자나 농협이 매각하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판매를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시장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를 생산자·농협 측에 보전한다. 이들 PEP나 PEPRO 모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도는 경우 정부는 보충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판매옵션계약(COV: Contrato de Opção de Venda)이다. 이 제도는 생산자가 연방정부에 대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팔 수 있는 옵션을 구

입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수준을 밑돌았을 때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COV는 AGF와 달리 정부가 즉시 구입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보험기능 외에 국내시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격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이 거래는 브라질의 클리어링 하우스인 CCTIP를 경유하여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리스크 옵션 프리미엄(PROP: Prêmio de Risco de Opcao Privada)이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을 구입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돌 경우 차액을 프리미엄으로 지불하는 옵션을 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제에는 민간기업판(版) 형태의 COV가 있다. 즉, 정부 대신 민간기업이 농가나 농협에 COV와 같은 내용의 옵션을 매각하고, 만약 농작물 시장가격이 예정했던 가격보다 밑돌 경우 그 민간기업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때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해 PROP가 이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한 직접 구입을 원인으로 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 외에 민간의 상거래 리스크를 경감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다음으로 연방정부대출(EGF: Emprestimo do Governo Federal)이라는 용자를 통한 프로그램이 있다. EGF는 금융기관이 생산자나 농협에 대출해주는 대신 최저가 기준으로 농작물을 담보로 징구하는 제도이다. 이 농작물은 CONAB에 의해 국가의 식량저장 용도로 관리되지만, 금융기관 앞으로 상환할 때 시황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돌 경우, 채무자인 생산자나 농협은 최저가격으로 정부에 그 농산물을 팔 수 있으며, 그 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된다. 따라서 시황이 좋지 않을 때의 재고를 지지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EGF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지지를 목적으로 한 특별 용자범위(LEC: Linha Especial de Credito)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EGF가 최저가격에 근거하여 기능하는데 반해, 최저가격과는 링크되지 않는 파라미터로 용자 실행되기 때문에, 채무자인 생산자나 농협에게는 EGF보다 유연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최저가격보장정책을 실행하는 톨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가 생산자나 농협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식량유통을 담보하는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옵션매각 등의 금융계획(scheme)을 이용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iii) 농업보험

브라질에서 농업보험은 농업재해 보상이 주체가 비교적 새로운 제도이다. 또한 기상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는 상품 특성이라는 점에서 보험료가 매우 높은 상품적 특성 때문에 농업생산자에게 좀처럼 침투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농업보험 확충을 목표로 2003년 공포한 법률 10,823호와 2004년 공포한 법령 5,121호에 의해 농업보험료 보조프로그램(PSR)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PSR에 의해 농업보험 계약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자가 직면한 기상 리스크를 경감함으로써 안정된 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농업보험 구매를 예정한 생산자에 대해 제도대출의 틀을 평소보다 15% 정도 확대하거나, 농업보험의 보험금 대출 및 일부 보충, 그리고 심각한 기상 리스크에 의한 지불이 발생한 보험회사에 대한 자금적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브라질 재보험기관(IRB)이 재보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 시장에서도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2018년 PSR 예산은 5.5억 레알로 전년대비 37.5%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iv) 조닝

기상 리스크 극소화를 위해 1996년부터 MAPA가 지역마다 각 농산물 경작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20가지 종류의 일년생 작물과 24가지 종류의 다년생 작물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데, 농업보험에 대한 정부보조를 받을 때, 생산자는 이 지역 설정계획에 따라야 한다.

## 3)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

이 부분에서는 2016년 5월 프로 비즈니스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테멜이 임시대통령(당시)에 취임한 이후 논의가 갑자기 활성화된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의 농지취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인에 의한 농지취득을 제약한다는 원칙은 없다. 한편, 외국국적으로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자연인' 및 '브라질에서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법

인'은 농지취득이 불가하며, 같은 외국국적이라도 '브라질에 거주하는 자연인' 및 '브라질에서 활동허가를 받은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식민농지개혁원(INCRA)의 관리 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i) 적용되고 있는 법제도

외국국적의 자연인과 법인이 임차를 포함한 농지를 취득하는 데 대한 제약을 정한 주요 법률에는 3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1971년 공포된 법률 5,709호이다. 이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자연인'과 '브라질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해외에 사는 외국국적의 자연인 및 해외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는 브라질 기업도 포함)은 일정한 제약 하에서 인가를 얻으면 농지구입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다음으로 1979년 공포된 법률 6,634호이다. 이 법률에서는 국방평의회(제정 당시에는 Conselho de Segurança Nacional로 표기되었지만, 1988년에는 Conselho de Defesa Nacional로 개명)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외국국적의 자연인 및 법인이 국경에서 150km 권내에 있는 농지나 국방 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취득은 불가하다고 정해져 있다.

마지막으로 1993년 공포된 법률 8,629호이다. 이 법률은 1971년 법률 5,709호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구입 외에 임차에도 제한을 두고, 외국국적 법인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법률의 근간으로 1988년에 만들어진 브라질연방공화국 헌법(이후 1988년 헌법)인 190조가 있다. 이 조항에는 '법률에서 외국국적 자연인과 법인의 농지구입이나 임차를 제약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인가를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각 법률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제약내용에 대해 <그림 5>에 정리하였다. 원래,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은 모두 브라질 국내에 있는 것이 전제 요건이었기 때문에, 농지구입이나 임차할 때에는 자연인에게는 RNE라고 불리는 외국인등록증이 그리고 법인에게는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다. 또한, 구입·임차 대상물건의 부동산 등기를 하고, INCRA가 관리하는 국가농지등록시스템(SNCR)이나 연방수세국(SRF)이 관리하는 농업부동산등기(Cafir)에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크게 취

득면적의 개별적 규제, 취득면적의 총량규제, 국가안전보장 상의 규제 3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먼저, 취득면적의 개별규제이다. 브라질 전 토지의 단위지자체(시·읍·면)는 INCRA에 의해 경제규모나 인구동태를 감안하여, 9개의 ZTM(Zona Típica de Módulo)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분류되며, 그 각 ZTM에 대응하여 농지취득에 사용되는 기준 단위인 MEI(Módulo de Exploração Indefinida)의 면적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연인·법인 각각이 취득하는 MEI에 따라 수속절차가 정해져 있다.

1 MEI당 면적은 ZTM에 따라 5~100ha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국적 자연인은 3 MEI까지는 특단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지만, 3 MEI 이상 20 MEI 이하는 INCRA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20 MEI 이상 50 MEI 이하는 INCRA의 인가 외에 관계부처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다음 그 부처로부터 인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외국국적 법인에 대해서는 자연인과 달리 취득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INCRA의 인가 외에 관계 부처에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이들 부처로부터의 인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인은 50 MEI 이상, 법인은 100 MEI 이상 면적을 취득할 때, 국회의 승인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취득면적 총량규제이다. 기초지자체(시·읍·면) 면적에서 차지하는 외국국적 자연인·법인이 보유한 농지면적 모두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또한 동일 국적의 것이 그 면적의 25%, 즉 기초지자체 면적 전체의 10%를 넘어 점유해서는 안 된다는 총량규제가 있다. 다만, 외국국적 자연인은 브라질 국적인과 결혼하여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나 브라질에서 출생한 아이가 있는 경우는 이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안전보장 상의 규제는 국경에서 150km권과 국방상 중요한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국방평의회의 사전 인가가 없는 한, 외국국적 자연인과 법인이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5.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농지취득 제한

취득면적(개별규제)			외국적 자연인	외국적 법인 (외국자본 과반출자 기업 포함)	
3 MEI 이내			INCRA의 승인 불요	① INCRA 본부 심의회 승인 후, INCRA 총재명에 의한 인가 필요 ② 기타, 개발계획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관계 성청에 의한 승인 필요	
ZT M코드	ZT M	1 MEI당 면적(ha)	3~20 MEI 이내		INCRA본부 심의회 승인 후, INCRA총재명에 의한 인가 필요
1	A1	5	20~50 MEI 이내		① INCRA 본부 심의회 승인 후, INCRA 총재명에 의한 인가 필요 ② 기타, 개발계획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관계 성청에 의한 승인 필요
2	A2	10			
3	A3	15			
4	B1	20			
5	B2	25			
6	B3	30			
7	C1	55			
8	C2	70	50~이내	국회 승인 필요	
9	D	100	100 MEI~	국회 승인 필요	
취득면적(총량규제)			①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에 속하는 농지 합계가 기초지자체 면적의 25%를 넘으면 불가 ② 동일국적의 자연인 및 법인에 속하는 농지 합계가 기초지자체 면적의 10%를 넘으면 불가		
국가안전보장상의 규제			① 국방평의회에 의한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외국국적의 자연인 및 법인은 국경으로부터 150km 권내 및 국방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농지취득은 안됨. ② 외국국적 기업이 아니라면 브라질인이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종업원의 2/3 이상이 브라질인일 필요가 있음.		

자료: INCRA자료로 하야시(林) 작성. 林瑞穂,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戰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7号(2018.3) 第6章 ブラジル에서 재인용.

(ii) 법제도에 대한 해석의 변천

이상과 같이 1988년 헌법 190조와 앞에서 기술한 3개 법률에 의해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의 농지취득에 관한 현재의 틀이 구성되었지만, 외국국적의 정의를 둘러싸고 법률 해석에는 시대배경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브라질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외국자본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국내시장 개방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 때까지 군정시절이나 민정 이관 후 얼마동안 민족자본과 외국자본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1988년 헌법 171조에서도 브라질 기업 및 민족자본을 정의하고 또 민족자본을 우

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브라질 정부는 외국국적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방총변호청(AGU)에 법해석의 변경을 촉진하였다. 원래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브라질기업을 ‘브라질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내에 경영본점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은 이 브라질 기업 이외를 의미하고 있었다.

때문에 AGU는 1988년 헌법 171조 제1항에서 ‘본점 및 경영실태가 브라질 국내에 있으며, 브라질 국내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을 브라질 기업으로 간주한다.’라고 하고 있어, 어떤 기업은 1988년 헌법 190조의 외국국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자연인 및 브라질 국내에서 활동을 인정받은 외국국적 법인은 1971년 법률 5,709호 규정에 근거하는 한, 농지구입이 가능하다. 해외거주 자연인이나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주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기업도 이 법률에 준한다.’라고 한 1971년 법률 5,709호 제1항 제1단락은 1988년 헌법과의 정합성이 없다고 한 의견서(Parecer no GQ-22)를 1994년에 AGU가 발표하였다.

1995년에는 외자차별이었기 때문에 1988년 헌법 171조를 삭제하는 개헌을 벌였으나, 이 때문에 AGU는 1994년의 의견서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1995년 개헌에 따른 1994년의 의견서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1971년 법률 5,709호의 제1항 제1단락을 무효로 하는 의견서(Parecer no GQ-181)가 1998년에 제출되었다. 이후, 외국자본이 브라질에 경영본거지가 있는 기업은 자유롭게 농지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노동자당인 룰라 대통령 시절인 2007년에 개최된 대통령부관방청 회의에서 그 흐름이 바뀌었다. 이 회의에서 ‘식량위기’와 ‘바이오연료 추진’을 중요 의제로 꼽는다면, 농지에 관한 논의가 초점<sup>23)</sup>이 되었다.

AGU의 해석 변경으로 외국적의 자연인 및 법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 환경보호지역 침식과 농지가격의 부적절한 폭등 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AGU에 대해 1998년의 의견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

23) Hage(2012, 17항)에 의하면, 2004년경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함.

그 결과, AGU는 2010년에 새로운 의견서(Parecer no LA-01)을 내놓았고, 1971년 법률 5,709호의 유효성을 재차 인정하여, ‘브라질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자연인’과 ‘브라질에서의 활동을 허가한 외국국적 법인’외에 브라질에 설립된 기업이 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자연인이나 해외에 본점을 둔 외국국적 법인이 과 반출자 또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2010년의 판단을 답습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상파울루 주 최고법원이 1994년과 1998년 AGU의 의견서와 같이, 1971년 법률 5,709호 제1항 제1단락에서 1988년 헌법은 정합성이 없으며, 2010년의 AGU의 의견서를 번복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브라질 경제를 견인하는 프로비즈니스 시점에서 상파울루 주만의 판결이지만, 연방정부와 INCRA는 이 판결이 연방정부의 국가안보 업무를 침해한다며 연방대법원에 호소하고, 연방대법원은 2016년 9월에 상파울루 주 최고법원 판결을 정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자본의 브라질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데멜 정권에서 외국국적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농지취득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잠정조치법 제정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2017년 중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각 내(閣內)에서도 완화에 대한 신중과의 의견도 있었다.

#### 4. ‘브라질 코스트’라 불리는 물류 문제

브라질의 농업부문은 광대한 국토를 배경으로 경작 가능지 개발 여력 외에도 국가의 낮은 개입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 그런데 그런 브라질 농업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는 ‘브라질 비용<sup>24)</sup>’이 병목(bottle-neck)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브라질 농업부문에도 해당되는 현상이다. 브라질 마토그루소 주에서 상파울루 주에 위치하는 브라질 최대의 항구인 산투스항과 북부에 위치한 아마존 강 수계의 하천항인 산타렌항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곡물을 수출할 경우, 그리고 파라나 주에서 파라나그아항까지 운반할 경우의 3패턴과,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미시

24) <http://jp.camaradojapao.org.br/brasil-business/advocacia/custo-brasil>

시피 강을 이용하여 미시시피강에서 중국으로 곡물을 수출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대두 생산비용<sup>25)</sup>은 미국 측과는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트럭 및 수로를 이용하여 항구까지 운반하는 경우, 파라나 주 파라나구아항까지 운반하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브라질의 물류 코스트가 미국을 크게 웃돈다. 즉, 대두 생산에 드는 비용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대표적인 브라질 비용인 물류 미정비라는 병목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sup>26)</sup>.

## 1) 브라질의 물류개관과 개발계획

<그림 6>은 브라질 주요 항구와 현재 예정된 물류개발 및 컨세션 계획을 지도 상에 나타낸 것이며, <표 3>은 2016년 지역별·항구별 대두 수출량을 나타낸 표이다.

브라질 최대 대두 생산지인 마토그로소 주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항구도시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예컨대 산토스항과 파라나구아항과 같은 동남부와 남부에 위치한 브라질 주요 항구까지는 2,000k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출되는 대두의 약 57%는 남동부·남부 항구까지 옮기고, 일부는 론도노폴리스에서 나오는 철도 Ferronorte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부설은 도로에 비하여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로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한편, 물류 코스트를 억제하려는 관점에서 마토그로소 주 대두 운반의 일부는 북부에 있는 아마존강을 이용한 수로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토그로소 주에서 론도니아 주 포르토베료까지 잇는 국도 BR364나 시넷피에서 미리티투바를 잇는 국도 BR163 등의 간선도로를 일부 이용하지만, 마나우스항이나 산타렌항까지 운반한 후에는 아마존 강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수로가 있다. 특히 포르토베료에서는 아마존 강과 합류하는 마데이라 강도 활용되고 있다.

남부 파라나 주와 리오그란데 도 술 주의 대두는 산토스항, 파라나구아항, 리오그란데항 3가지로 집약되어 있는데, 생산지에서 항구까지는 국도 BR392나 국도 BR487 등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토그로소 주에 비하면 거리도 짧고, 물류비용도 낮아진다.

---

25) 기준년도는 2010년 시점임. 브라질은 비료나 농약 등 투입재는 수입품으로 사용하고, 금융비용과 세금보험에 관한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이들 점에서는 미국보다 코스트가 높아지게 됨. 한편, 토지관련비는 브라질이 미국보다 크게 우위성이 있음.

2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연재 될 '브라질의 곡물산업'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임.

마트그릇소주 동부와 대두 신흥산지인 마트피바 지역의 대두는 아나폴리스에서 산루이스까지 연결하는 철도 Ferrovia Norte Sul을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다. 일본계 상사는 북부·남동부·남부의 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ADM, 방계, 카길, 루이드레퓨스 등 곡물 메이저에 대항하는 형태로 산루이스 항을 중심으로 한 투자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코스트’라는 물류정비에 대해 농업부문의 제약으로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2003년 노동자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요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다.

우선, 룰라정권(2003년~2010년) 하에서 2007년 4월 ‘국가물류계획(PNLT)’이 공표되었다. 2005년 시점에서 브라질의 물류수단은 트럭수송이 58%, 철도가 25%, 수로가 13% 비율에서 2025년까지 철도를 32%, 수로를 29%로 끌어올림으로써, 트럭으로 운반하는 의존도를 33%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2023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1월에는 ‘경제성장 가속화계획(PAC)<sup>27)</sup>’에 의해 인프라 개발로 인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039억 레알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일본의 물류투자계획을 국가물류계획인 PNLT와 통합 추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호세프 정권은 2012년 8월 ‘물류투자계획(PIL)’을 발표하였다. PIL은 25년간을 기간으로 철도와 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이며, 초기 5년간 795억 레알, 이후 20년간 535억 레알, 합계 1,330억 레알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PIL을 관리하기 위해 물류기획공사(EPL)를 설립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항만에 대한 542억 레알 투자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 둔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청 등 정치적 혼란, 브라질석유공사에 대한 비리 문제 등으로 이들의 계획의 추진은 애로에 빠져버렸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해 60% 정도의 진척에 머물고 말았다.

2016년 5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되어 탄생한 테멜 잠정정권(당시)은 민간기업과 제휴하고 인프라부문에 투자한다는 ‘투자연계 프로그램

27) UOL의 보도에 의하면, 2010년 3월 29일에 룰라정권은PAC의 후계계획으로 2011년부터 시작하는 인프라투자계획 「경제성장 가속화계획(PAC2)」를 발표하였음. 이 시점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589억 레알, 2014년 이후에는 6,316억 레알을 투자하여, 합계 1조 5,900억 레알 이상의 투자계획이었음.

(PPI)’을 목표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PPI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호세프 정권에 의해 설립된 EPL을 PPI국 산하에 두면서 PIL도 함께 추진하였다. PPI는 컨세션 및 민영화에 의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당 정권 시대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비교하여, 대상 항목을 작성하였다, 현재는 450억 레알 정도의 계획 규모이다.

특히 곡물수송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3개의 철도개발 계획이다. 첫 번째는 북부 항구에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시네틀에서 밀리티투바를 잇는 ‘Ferrogrão’로 불리는 EF-170의 개발이다, 곡물 메이저들의 컨세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산루이스항과 상파울루 주를 잇기 위해 팔마스에서 에스테라테오에 스텔 사이에 부설한 EF-151이다.

마지막으로 ‘동서통합철도(FIOL)’로 불리는 카에치테와 이료우신을 잇는 EF-334의 부설 계획이며, 서 바이아의 곡물을 수출하는 경로로 여겨지고 있다.

표 3. 2016년 대두의 지역별·항구별 수출 물량

단위: 톤

항구명 주명	북부			북동부		남동부		남부		기타	합계
	마나우스	바르카레나	상타렌	상루이스	상바도르	비토리아	상토스	파라나구아	리오그란데		
1 마토그로스	1,434,848	1,813	1,249,146	1,320,970		895,465	7,148,369	630,246	1,543	2,540	15,222,273
2 리오그란데 도술							1,186	197,469	9,134,227	197	9,529,690
3 파라나							137,179	5,540,843	389,491	1,905	7,972,653
4 고이아스			580	24,519	2,996	1,071,924	2,021,453	188,085	-	240	3,549,453
5 상파울로			8,680	48,643		5,700	2,898,008	126,158	41,526	24	3,152,853
mato 피바 지역	바이아		1,159	30,910	1,266,549	10,389	92		7,500	85	1,402,068
	토칸친스		2,766		981,513	92,442	3,374	980			1,081,074
	마라논		27,996		859,631		49,530	4,431			941,587
	피아우이				245,889	12,752					2
기타	539,465	2,154,686	435,605	338,121	33,063	908,584	2,264,066	1,474,451	129,784	191,747	8,469,570
합계	1,974,313	2,187,261	1,695,169	3,850,196	1,407,801	2,944,967	14,475,763	8,157,251	9,704,071	5,185	51,581,875

자료: 개발상공성(MDIC) 자료에서 하야시(林) 작성.

그림 6. 주요 항구와 물류 및 개발·컨세션 계획 개략 지도



자료: Projeto Crescer 사이트 및 USDA 자료에서 하야시(林) 작성.

## 5. 맺음말

브라질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수의 농업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 배경에는 천혜의 기상조건 외에도 개방이라는 농업정책이 주요하였다. 브라질 농업정책의 성공은 세계적으로도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곡물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은 물론이고 타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보고서들도 많이 발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브라질 물류비용인 ‘브라질 코스트’ 개선 대책의 추진에 의해 브라질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곡물 수입국의 입장에서 브라질 곡물생산 증산은 곡물 공급량 증가라는 측면에서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입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제곡물 가격은 기상 리스크가 크고, 옥수수나 대두를 에탄올 생산에 이용하는 것과 같이 곡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곡물 가격 급변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곡물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곡물 확보 차원에서 일본처럼 우리도 해외진출에 의한 곡물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9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포스코대우 인터내셔널이 곡물터미널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이나 미국에서도 활발한 해외곡물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는 우리 축산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이다.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도 브라질을 우리의 수입대상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또한 중요하다.

## 참고문헌

- 네이버, 브라질 경제사(<https://luis2012.blog.me/221010130065>),
- 네이버지식,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20&docId=62589151&qb=7Y287IS87Yq4UFNF&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20&docId=62589151&qb=7Y287IS87Yq4UFNF&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대한민국 국회, 의회용어사전
- 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www.kofpi.or.kr/info/tech\\_04.do](https://www.kofpi.or.kr/info/tech_04.do))
- 쿠키뉴스, [최우성의 커피소통③] 타우바테 협정(Convenio di taubate)과 과잉생산의 딜레마(dilemma),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2772>
- 허 덕, 박지원,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세계곡물시장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0월호
- 林 瑞穂, (2018.3), 「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プロ研資料 第7号 第6章 ブラジル, 農林水産政策研究所
- 安達英彦 (2013) 「農業保護政策の国際比較-日本農業過保護論の誤解を解く-」, 2013年冬, Vol.28, JC総研 レポート
- 荒木進 (1996) 『ブラジル連邦共和国憲法』, 日伯毎日新聞社
- 伊藤秋仁, 住田育法, 富野幹雄 (2015) 『ブラジル国家の形成』, 晃洋書房
- 王楽平 (2006) 「中国のWTO加盟による食料生産と貿易への影響-2002~2004年を中心に-」, 明治大学社会科学研究所紀要(個人研究(2003年度~2004年度))
- 金七紀男 (2009) 『ブラジル史』, 東洋書店
- ブラジル日本商工会議所 웹사이트 <http://jp.camaradojapao.org.br/>
- 堀坂浩太郎 (2012) 『ブラジル-跳躍の奇跡-』, 岩波新書
- ABIMILHO.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o Milho (7 de fevereiro de 2018), "Oferta e Demanda do Milho do Brasil", <http://www.abimilho.com.br/estatisticas> (2018년 2월 19일 열람)
- Alston, Lee & Mueller, Bernardo (2016) "Economic Backwardness and Catching Up: Brazilian Agriculture, 1964-2014", NBER Working Paper No. 21988
- Agrolink(14 de agosto de 2017) "Primeira fábrica de etanol de milho é inaugurada por

- Temer e Maggi”, [https://www.agrolink.com.br/noticias/primeira-fabrica-de-etanol-de-milho-e-inaugurada-por-temer-e-maggi\\_396725.html](https://www.agrolink.com.br/noticias/primeira-fabrica-de-etanol-de-milho-e-inaugurada-por-temer-e-maggi_396725.html)
- Banco Central do Brasil Manual de Crédito Rural (MCR),  
<https://www3.bcb.gov.br/mcr>(2018년 2월 19일 열람)
- Coelho, Carlos Nayro (2001) “70 anos de política agrícola no Brasil(1931-2001)”,  
Revista de política agrícola, Ano X -No.3 (Jul/Ago/Set 2001)
- Coleman, Jonathan R, Fry, John T, Boughner, Devry S, & Office of Industries of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02) “The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on U.S. Agricultural Exports”, Office Industries Working Paper No. ID-03
- CONAB. Companhia Nacional de Abastecimento (2017) Acompanhamento Da Safra  
Brasileira grãos V.4-Safra 2016/17-Décimo segundo levantamento
- Curia, Luiz Roberto (2015)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Promulgada  
em 5 de outubro de 1988-, 51ª edição, Editora Saraiva
- FAOSTAT, <http://www.fao.org/faostat/en/#country/21>
- Fausto,Borris(1995) História do Brasil, Editora da Universidade de São Paulo
- Fishlow, Albert (2011) O Novo Brasil -As Conquistas Políticas, Econômicas, Sociais e  
Nas Relações Internacionais-, Saint Paul Editora
- Fortuna, Eduardo (2013) Mercado Financeiro -Produtos e Serviços-, Quaritymark  
Editora
- Hage, Fábio Augusto Santana, Peixoto, Marcus, & Vieira, José Eustáquio Ribeiro Filho  
(2012) “Aquisição de terras por estrangeiros no Brasil: Uma avaliação jurídica e  
econômica”, IPEA
- IEG/FNP, Agriannual Online <http://agriannual.com.br/secao>
- IPEA.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Logística e transportes no Brasil:  
Uma análise do programa de investimentos 2013-2017 em rodovias e ferrovias”  
[http://repositorio.ipea.gov.br/bitstream/11058/7420/1/RP\\_Log%C3%ADstica\\_2016.pdf](http://repositorio.ipea.gov.br/bitstream/11058/7420/1/RP_Log%C3%ADstica_2016.pdf)(2  
018년 2월 19일 열람)
- Lin, Justin Yifu “WTO Accession and Chinese Economy: Impacts on Agriculture,  
Financial Sector, and State-owned Enterprises”,  
[https://www.rieti.go.jp/en/events/02042201/lin\\_1.pdf](https://www.rieti.go.jp/en/events/02042201/lin_1.pdf)(2018년 5월 1일 열람)

- MAPA. Ministério da Agricultura, Pecuária e Abastecimento (2008) “Brazil - Agricultural Policies-”
- MAPA (2010) “Instrumentos de apoio à comercialização: PGPM”,  
<http://www.agricultura.gov.br/assuntos/camaras-setoriais-tematicas/documentos/camaras-setoriais/cacau/anos-antiores/pgpm.pdf>(2018년 2월 19일 열람)
- MAPA (2016) “Plano Agrícola e Pecuário 2016/2017”  
<http://www.agricultura.gov.br/assuntos/sustentabilidade/plano-abc/arquivo-publicacoes-plano-abc/PAP1617.pdf>(2018년 2월 19일 열람)
- MAPA (2017) “Plano Agrícola e Pecuário 2017/2018”  
<http://www.agricultura.gov.br/assuntos/sustentabilidade/plano-agricola-e-pecuario/arquivos-pap/folder-pap-2017-18>(2018년 2월 19일 열람)
- MAPA (2017) “Sumário Executivo -Complexo Soja-”, Outubro 2017
- MAPA (2017) “Sumário Executivo -Milho em Grão-”, Outubro 2017
- MAPA 웹사이트 <http://www.agricultura.gov.br/assuntos/relacoes-internacionais/estatisticas-de-comercio-exterior>(2018년 2월 20일 열람)
- MAPA 웹사이트  
<http://indicadores.agricultura.gov.br/QvAjaxZfc/QvsViewClient.aspx?public=only&size=1ong&host=QVS%40masrv1005&name=Temp/ec9140cfe907414aaf009f1e133c39af.html>(2018년 2월 20일 열람)
- MMA. Ministério do Meio Ambiente 웹사이트  
<http://www.mma.gov.br/biomas>(2018년 2월 19일 열람)
- MT. Ministério dos Transportes (2007) “Plano Nacional de Logística & Transportes (Abril 2007) ”
- MT(2017) “Portos e Aviação Civil, Corredores Logísticos Estratégicos -Volume 1 Complexo de Soja e Milho- (Versão 1, 2017) ”
- Miranda, E.E (2017) “Sustentabilidade, Limites & Principios de Humanidades”, EMBRAPA
- Mueller, B & Mueller, C (2016)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razilian model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stitutions versus sectoral policy”, The Quarterly Review

- of Economics and Finance 62, pp.12–20.
- Mueller, Charles C (1988) “Conflitos Intragovernamentais e a Formação de Preços Agrícolas no Brasil”, Pesquisa e Planejamento Econômico, 18(3), pp. 685–708.
- OECD (2017)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7 Part II: Developments in Agricultural Policy and Support by Country (July 2017)”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TAD/CA/APM/WP\(2017\)12/FINAL&docLanguage=En](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TAD/CA/APM/WP(2017)12/FINAL&docLanguage=En)(2018년 2월 19일 열람)
- Reydon, B.P & Fernandes, V.B. (2012) “Land Grab or Land Acquisitions: Lessons from Latin America”, The Global Farms Race: Land Grabs, Agricultural investment, and the scramble for Food Security, Island Press
- Roberto, José Ferreira Savoia (2013) “Agronegócio No Brasil Uma Perspectiva Financeira” , Saint Paul Editora
- Tamarindo, U.G.F & Pigatto G, Braga Junior, S.S (2017) “Aquisição de terra rural Brasileiras com a participação de estrangeiros: Uma análise das restrições jurídicas, da jurisprudência e dos possíveis impactos econômicos decorrentes ao agronegócio” , Brazilian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v.11(3), pp.247–264
- Toredo, M (17 de setembro de 2017) “Criticada por ambientalistas, venda de terras para estrangeiros volta à tona”, Folha de São Paulo,  
<http://www1.folha.uol.com.br/mercado/2017/09/1918963-criticada-por-ambientalistas-venda-de-terras-para-estrangeiros-volta-a-tona.shtml>(2018년 2월 19일 열람)
- Truffi, R (16 de fevereiro de 2017) “O governo Temer prepara MP para a venda de terras a estrangeiros,” CartaCapital,  
<https://www.cartacapital.com.br/politica/governo-temer-prepara-mp-para-venda-de-terras-a-estrangeiros>(2018년 2월 19일 열람)
- UOL Notícias (29 de março de 2010) “Governo lança PAC 2 para investir R\$ 1,59 trilhão e impulsionar campanha de Dilma,”  
<http://noticias.uol.com.br/especiais/pac/ultnot/2010/03/29/governo-lanca-pac-2-para-investir-r-159-trilhao-e-impulsionar-campanha-de-dilma.jhtm%20>(2018년 2월 19일 열람)
-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7) “Brazil Soybean Transportation”,

March 10, 2017

USDA (2017) "Brazil Soybean Transportation", August 25, 2017

USDA (2016) "Corn and Soybean Production Costs and Export Competitiveness in Argentina, Brazil, and the United States", June 2016

USDA (2017) "Soybean Transportation Guide: Brazil 2016", May 2017

WWF. 웹사이트 World Wide Fund for Nature

[https://www.wwf.org.br/natureza\\_brasileira/questoes\\_ambientais/biomas/bioma\\_cerrado/mapa\\_bioma\\_cerrado/](https://www.wwf.org.br/natureza_brasileira/questoes_ambientais/biomas/bioma_cerrado/mapa_bioma_cerrado/)(2018년 2월 19일 열람)